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Peer Acceptance, Peer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양 원 경*
Yang, Won Kyung
도 현 심**
Doh, Hyun Sim

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peer acceptance, peer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were examined in a sample of 392 eighth grade students(189 boys and 203 girls).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regarding peer acceptance(social preference and social status), peer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High social prefere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self-esteem. Social preference varied as a function of social status both in boys and in girls. Popular boys had higher self-esteem than neglected and rejected boys; popular girls had higher self-esteem than neglected girls, who had higher self-esteem than rejected girls. The more boys and girls were victimized by peers, the lower their self-esteem. The higher their social preference, the less they were victimized. Rejected boys and girls experienced peer victimization much more than either popular or neglected boys and girls.

I. 서론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로서, 자신의 성취 경험과 의미 있는 타인 및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 라고 정의된다(Coopersmith, 1967; Harter, 1982, 1983; Rosenberg, 1979, 1986). 자아존중감의 형

성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발달의 중심 과제로서,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인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청소년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충분히 알려져 있지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 인간발달학과 조교수

않은 상태이다(Rosenberg, 1986).

자아존중감이 개인 및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Bandura, 1977, 1978; Bem, 1972; Cooley, 1902)는 점에서 볼 때,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환경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가정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지배력은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청소년은 아동기와는 달리 또래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강해지고,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됨에 따라 또래집단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이 집단 성원들로부터의 수용은 사회성 및 정서 발달과 자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Harter, 1993).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의 기능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또래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중요한 지지적 원천 및 사회적 능력을 학습할 장을 잃게 되며, 그 결과 정서적 불안정, 부정적인 성격 형성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Harter, 1993; Hymel, Franke, & Freigang, 1985; Parker & Asher, 1987).

또래관계에 관심을 둔 많은 연구자들은 또래수용성을 강조하였다. 또래수용성은 아동들이 또래 집단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수용되는 정도로서, 인기도라는 의미로 다른 아동들이 선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선호도와 또래에게 수용 또는 거부되는 정도에 따라 아동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하는 사회적 지위로 구분할 수 있다(Bishop & Inderbitzen, 1995; Bukowski, Hoza, & Newcomb, 1994; Coie, Dodge, & Coppotelli, 1982; Hartup, 1983;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7). 연구자들은 특히 또래수용성이 낮은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거부된 아동들이 겪는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한 아동들은 다양한 적응 문제를 갖게 될 위험이 크다(Parker & Asher, 1987). 비

인기아동은 인기아에 비해 외로움과 사회적 불만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고, 우울증을 더 경험한다는 결과(Asher, Hymel, & Renshaw, 1984; Cassidy & Asher, 1992)도 나타났다. 낮은 또래수용성은 신경증, 정신병, 자살, 비행, 퇴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청소년기 부적응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성인기 부적응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또래수용성은 아동의 정서적 적응 및 발달과도 관련되어 또래들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아동들은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은 사회적 유능성을 낮게 지각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아동은 자아지각이나 자아존중감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들의 또래수용성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들에 의하면, 또래수용성과 자아존중감간에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서 또래수용성이 낮은 아동들은 자아존중감도 낮게 보고하였다. 또래로부터의 지지, 친밀, 우의와 아동의 자기역량 지각도 정적 상관을 보여서 또래들로부터 지지를 받을수록 자기역량을 높게 지각하였다. 따라서 또래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수용은 아동의 자기 역량 지각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강민주, 1993; 이주리, 1994; 최용주, 이재연, 1993; 한종혜, 1996).

이와 같이, 또래수용성이 낮은 아동들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지각한다고 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반드시 일관적이지만은 않다(Bishop & Inderbitzen, 1995; Boivin & Begin, 1989; Harter, 1982; 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 Boivin과 Begin(1989)에서 사회적 선호도가 자아지각과 관계되었고, 인기아는 다른 지위의 아동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아동이 자아지각이나 자아존중감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지만 거부된 아동들이 모두 부정적인 자아지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또래로부터 무시된 아동의 자아지각은 보통아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면서 거부된 아동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거부아와 무시아는 행동이나 자아지각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사회적 지위 집단에 따라 구분하여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되고 있다. Patterson과 동료들(1990)에 의하면,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인기아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거부된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무시된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즉 거부아와 무시아들은 인기아보다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낮게 지각했고, 무시아들은 인기아와 양면성 아동보다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지각에서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러나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에서 사회적 지위 집단들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지위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 연구(Bishop & Inderbitzen, 1995)도 있다. 이와 같이 또래수용성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연구자들에 따라 일치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러한 또래수용성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은 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또래관계가 중요시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래수용성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래수용성의 개념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며, 또래관계의 또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또래괴롭힘을 들 수 있다. 또래괴롭힘은 또래 학대의 형태로서, 아동이 빈번하게 또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의된다(Perry, Kusel, & Perry, 1988). 또래관계에서 아동들이 나타내는 문제행동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은 특히 공격적 행동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주제로 한 연

구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공격성을 내포한 상호작용에는 가해아뿐만 아니라 희생아가 포함되는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해아와 희생아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기에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생겼고 다른 북유럽 국가들로 급격하게 퍼지게 되었다. 특히 1982년 말 노르웨이에서 또래폭력에 시달리던 10-14세 소년 세 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래괴롭힘은 전국가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Olweus, 1991). 그후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일본,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이 되면서 그 관심은 더욱 깊어졌다. 또래괴롭힘이라는 문제가 전세계에 걸쳐 매우 오래된 현상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최근에야 시작되었다. 더욱이 국내의 경우는, 일본의 이치메에 비유하면서 집단 폭력 및 또래괴롭힘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래수용성과 마찬가지로 또래괴롭힘은 학령기 동안 매우 안정적이고 인생 경로를 통해 다양한 부정적인 적응 결과와 관련된다. 학령기동안 또래들로부터 만성적으로 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들은 우울감, 불안감, 낮은 자아존중감, 외로움과 다양한 형태의 학교 부적응을 겪게 된다(Boulton & Underwood, 1992; Egan & Perry, 1998; Kochenderfer & Ladd, 1996; Olweus, 1984, 1991, 1993).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자기확신과 자아존중감이 부족하여 공격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Hodges, Malon, & Perry, 1997; Perry, Williard, & Perry, 1990; Schwartz, Dodge, & Coie, 1993). 이처럼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나 원인과 결과가 확실치 어느 것인지 모호하다. Egan과 Perry(1998)에 의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아동들은 또래괴롭힘을 당하기 쉬웠고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또래괴롭힘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또래수용성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또래 집단에서의 수용성이 낮은 아동들, 즉 또래들에게 거부될 당하거나 친구가 없는 경우 학령기동안 또래들로부터 만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Hodges et al., 1997; Perry et al., 1988). 괴롭힘을 경험한 많은 아동들은 또래 집단에서 가치있는 역할을 차지하는데 유리한 우정적, 협동적, 친사회적 행동과 유머감과 같은 사회적 유능감이 부족하다. 이처럼 또래수용성과 또래괴롭힘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지위와 같은 또래수용성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도 살펴볼 것이다.

한편, 또래괴롭힘에 대한 측정은 그 동안 또래, 교사 및 아동 자신의 보고에 의해 이루어졌다(Perry et al., 1988). 또래들은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공격적인 상황을 보기 때문에 누가 괴롭힘을 당하는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또래보고는 개별 아동의 편견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측정의 통계적 신뢰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교사보고 역시 객관적으로 또래괴롭힘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그리고 Olweus(1991)는 또래괴롭힘의 적절한 평가도구로서 자기보고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에 대한 국내의 초기연구로서,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또래보고, 교사보고와 자기보고를 모두 이용하고자 한다.

이외,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친구관계에서의 성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nderbitzen-Pisaruk와 동료들(1992)에 의하면, 남아들은 서로의 관심사가 같은 여러 명이 함께 집단을 구성하여 친구관계를 갖고

다수로 이루어진 또래집단의 소속 여부를 중시하는 반면, 여아들은 한두 명의 친구를 단적으로 사귀는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남학생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자신감을 경험하므로, 낮은 사회적 지위를 경험하는 경우 자신의 대인관계에 불만족을 느끼고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느끼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반면, 매우 친밀한 소수의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누는 여학생은 이런 가까운 친구의 유무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덜 경험할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의 형성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남아의 경우 사회적 지위에 따라 또래괴롭힘 및 자아존중감에 보다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리라 가정된다. 또한, 또래괴롭힘에 대한 연구들에서 중·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Hoover & Hazler, 1992)도 있으나, 많은 연구들은 남아들이 여아보다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다(Boul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1; Perry et al., 1988; Perry et al., 1990). 여아들은 사회적 고립과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추방의 형태로 간접적이고 미묘한 형태의 괴롭힘에 더 종종 노출되는 반면, 남아들은 직접적인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을 보인다(Kochenderfer & Ladd, 1996; Olweus, 199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또래괴롭힘 연구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에 따라 청소년의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이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고, 또래수용성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Y시에 위치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392명의 남녀학생들(남학생: 189명, 여학생: 203명; 평균연령: 14.7세)과 그들의 교사들(9명)이다. 이 연령층은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고 기존의 국외 연구에서 이 연령층은 또래괴롭힘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Olweus, 1993), 또한 국내에서도 이 연령층의 학교폭력이 종종 보도되는 점에 근거하여 이러한 연령층이 선정되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완성된 또래수용성,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척도들로 구성된다.

1) 또래수용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또래수용성(사회적 선호도, 사회적 지위)을 측정하기 위해 Coie와 Dodge(1983)가 사용한 긍정적·부정적 또래지명 절차를 사용하였다. 즉, 대상 학생들로 하여금 한 학급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성 친구'와 '가장 싫어하는 동성 친구'를 3명씩 적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각 청소년이 동성의 급우로부터 받은 긍정적 지명 빈도와 부정적 지명 빈도를 산출하고 이를 학급별로 긍정적 지명 점수(L)와 부정적 지명 점수(D)로 표준점수화하였다. 그 다음 표준화된 지명점수로 사회적 선호도 점수(Social Preference: SP)와 사회적 영향 점수(Social Impact: SI)를 계산하였다. 사회적 선호도 점수는 긍정적 지명

점수에서 부정적 지명 점수를 감산하여,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점수는 이 둘을 합산하여 산출되었다.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기 위해 사회적 선호도 점수가 1보다 크고 긍정적 지명 점수가 0보다 크며, 부정적 지명 점수는 0보다 작은 집단(인기아 집단(popular group))으로 분류하였다($SP > 1, L > 0, D < 0$). 거부아 집단(rejected group)이란 사회적 선호 점수가 -1보다 작고, 긍정적 지명 점수가 0보다 작으며, 부정적 지명 점수가 0보다 큰 집단을 말한다($SP < -1, L < 0, D > 0$). 무시아 집단(neglected group)은 사회적 영향 점수가 -1보다 작고, 긍정적 지명 점수와 부정적 지명 점수가 모두 0보다 작은 집단이다($SI < -1, L < 0, D < 0$).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임연진, 1992; Boivin & Begin, 1989; Perry et al., 1988)에서 주를 이루는 것으로 밝혀진 인기아, 거부아, 무시아 세 집단만을 사회적 지위에 포함시켰다. 총 392명의 연구대상 중 인기아는 102명, 거부아는 80명, 무시아는 46명으로 구분되었으며, 나머지는 양면성, 보통아로 구분되거나 어느 집단으로도 구분되지 않았다.

2) 또래괴롭힘 척도

본 연구에서는 Perry와 동료들(1988)이 사용한 또래괴롭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Wiggins와 Winder(1961)가 개발한 Peer Nomination Inventory(PNI)를 토대로 수정된 것이다. 이 척도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또래보고, 교사보고와 자기 보고에 의해 측정된다. 또래용의 경우, 아동들은 각 문항에 일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성의 같은 반 아동들의 이름 아래 표시(V)

를 하도록 되어 있다(<부록> 참고). 각 아동의 또래괴롭힘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아동이 그 문항에 해당된다고 표시한 또래수의 백분율을 계산한 후, 각 문항의 백분율을 합한다. 따라서 괴롭힘 점수는 0~700점에 이른다. 예를 들면, A라는 아동에 대해 25명의 또래들 가운데 5명이 1번 문항에 표시를 한 경우, 이 아동의 1번 문항의 점수는 20점($5/25 \times 100$)이다. 이러한 식으로 산출된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해서 이 아동의 또래 보고에 의한 최종 점수가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 또래들이 평가한 또래괴롭힘 점수의 평균은 29.28(표준편차: 62.82)이었으며,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0과 500이었다.

교사용 질문지는 교사들이 학급의 각 아동들을, 그리고 자기 보고용은 아동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Likert식 4점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이다. 교사가 평가한 또래괴롭힘을 Cronbach's α 에 의해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7문항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alpha = .86$ 이었다. 자기 스스로 평가한 또래괴롭힘은 전체 신뢰도를 감소시키는 한 문항(3번)을 제외하여 총 7문항 중 6문항이 포함되었으며 $\alpha = .86$ 이었다(<표 1> 참고). 또한 또래괴롭힘에 대한 또래 보고, 교사보고와 자기보고간에는 다소 낮거나 보통 정도의 상관관계($r = .28 \sim .40, p < .001$)가 나타나, 본 연구의 또래괴롭힘 척도가 적절한 수준의 타당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 (1985)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섯 가지 하위영역(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신체용모, 학업능력, 행동품행)에서의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으로 구성된다. 예비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구성된 본조사용 척도는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신체용모, 학업능력 및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

중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여섯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된 총 33문항의 질문지이었다. 기존 연구의 요인들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33문항들에 대해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한 개의 문항(18번)이 제외되었고, 요인이 구분되지 않는 문항(5, 16, 27, 29번)이 제외되었으며, 본래의 척도에서는 행동품행에 포함되었던 문항들(4, 15번)이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하위요인들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요인별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8번)이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6개 요인에 총 27문항이 산출되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적절한 수준(Cronbach's $\alpha = .61 \sim .88$)이었다(<표 1> 참고).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척도	문항수	신뢰도
<u>또래괴롭힘</u>		
교사보고	7	.86
자기보고	6	.86
<u>자아존중감</u>		
사회적 수용도	4	.82
운동능력	4	.88
신체용모	4	.81
학업능력	6	.80
행동품행	4	.61
전반적 자아가치감	5	.70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척도의 구성을 위해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52명의 남녀학생들(남학생: 27명, 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1998년 7월 8일에 본 연구자와 훈련된 조사원들이 각 교실에 들어가 학생용 질문지를 직접 조사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교사용 질문지는 일주일 후에 회수하였고 한 교사당 약 50명의 학생들을 평가하였다. 회수된 441부의 질문지 가운데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학생들의 경우(49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392부의 질문지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통해 분

석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각 변인들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선호도 및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위에 따른 또래괴롭힘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 분석

또래수용성,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에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또래수용성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지위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또래괴롭힘은 또래보고($t=2.86, p<.001$), 교사보고($t=2.77, p<.001$)와 자기보고($t=5.49, p<.001$) 모두에서 유의한 성차를 보여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사회적 수용도($t=2.04, p<.05$), 운동능력($t=4.30, p<.001$), 신체용모($t=4.39, p<.001$) 및 학업능력($t=2.66, p<.01$)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t=3.15, p<.01$)은 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에서는 아무런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또래수용성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1) 사회적 선호도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사회적 선호도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을 구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학생 모두 사회적 선호도는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선호도는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수용도($r=.26, p<.001$) 및 행동품행($r=.15, p<.05$)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여학생은 사회적 수용도($r=.35, p<.001$)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전반적 자아가치감($r=.19, p<.01$)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사회적 선호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 선호도는 남학생의 경우, 운동능력, 신체용모 및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여학생의 경우, 운동능력, 신체용모, 학업능력과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2> 참고).

2) 사회적 지위에 따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기아, 거부아, 무시아와 같은 세 범주의 사회적 지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들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녀 학생 모두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남학생: $F=9.39, p<.001$; 여학생: $F=4.75, p<.01$). Duncan test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 남학생들의

<표 2> 사회적 선호도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사회적 수용도	운동 능력	신체 용모	학업 능력	행동 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
사회적 선호도						
남학생(N=189)	.26***	.09	.03	.05	.15*	.09
여학생(N=203)	.35***	.04	.96	.14	.01	.19**

*p<.05 **p<.01 ***p<.001

<표 3> 사회적 지위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위	운동 능력	신체 용모	학업 능력	행동 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
사회적 선호도						
남학생(N=112)	인기아	52	3.24	.50	9.39***	A
	거부아	38	2.78	.59		B
	무시아	22	2.76	.64		B
여학생(N=116)	인기아	50				
	거부아	42	3.05	.63	4.75**	A
	무시아	24	2.64	.76		B
	무시아		2.75	.47		AB

p<.01 *p<.001

경우 인기아(M=3.24)가 거부아(M=2.78)와 무시아(M=2.76) 보다, 여학생의 경우 인기아(M=3.05), 무시아(M=2.75), 거부아(M=2.64)의 순으로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운동능력, 신체용모, 학업능력 및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 참고).

3.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들의 경우,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

괴롭힘은 사회적 수용도($r=-.26, p<.001$), 운동능력($r=-.17, p<.05$) 및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r=-.21, p<.01$)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서, 또래괴롭힘을 많이 당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그러나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은 신체용모 및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교사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은 신체용모($r=-.19, p<.05$) 및 학업 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r=-.24, p<.01$)과 관계를 나타내어, 교사가 또래괴롭힘을 높게 평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그러나 교사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은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및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

<표 4>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남:189명, 여:203명)

	사회적 수용도	운동 능력	신체 용모	학업 능력	행동 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
또래괴롭힘						
또래보고	-.26*** (-.44***)	-.17* (-.21**)	-.11 (-.13)	-.21*** (-.21***)	.05 (.02)	-.10 (-.21**)
교사보고	-.12 (-.11)	-.05 (-.001)	-.19* (-.07)	-.24*** (-.23**)	-.07 (-.20**)	-.11 (-.11)
자기보고	-.38*** (-.46***)	-.37*** (-.13)	-.32*** (-.14*)	-.18* (-.21**)	-.25*** (-.05)	-.36*** (-.20**)

주: 괄호안은 여학생의 수치임

*p<.05 **p<.01 ***p<.001

과 전반적 자아가치감과는 관계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은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서 (사회적 수용도: $r=-.38, p<.001$; 운동능력: $r=-.37, p<.001$; 신체용모: $r=-.32, p<.001$; 학업능력: $r=-.18, p<.05$; 행동품행: $r=-.25, p<.001$; 전반적 자아가치감: $r=-.36, p<.001$), 또래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표 4> 참고).

여학생들의 경우,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은 사회적 수용도($r=-.44, p<.001$), 운동능력($\beta=-.21, p<.01$) 및 학업능력($r=-.21, p<.01$)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r=-.21, p<.01$)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서, 또래괴롭힘을 많이 당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은 신체용모 및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보고의 경우, 또래괴롭힘은 학업능력($r=-.23, p<.01$)과 행동품행($r=-.20, p<.01$)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또래괴롭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그러나 교사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은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및 신체용모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은 사회적 수용도($r=-.46, p<.001$), 신체

용모($r=-.14, p<.05$) 및 학업능력($r=-.21, p<.01$)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r=-.20, p<.01$)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여, 또래괴롭힘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은 운동능력과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다(<표 4> 참고).

4. 또래수용성과 또래괴롭힘

1) 사회적 선호도와 또래괴롭힘간의 관계

사회적 선호도와 또래괴롭힘간의 관계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남녀학생 모두 사회적 선호도는 또래괴롭힘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사회적 선호도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은 낮았다. 남학생들의 경우, 사회적 선호도와 또래괴롭힘간의 관계는 또래보고($r=-.31, p<.001$)가 교사보고($r=-.16, p<.05$)나 자기보고($r=-.22, p<.01$)에 비해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여학생들의 경우도 또래보고($r=-.58, p<.001$)가 교사보고($r=-.17, p<.05$)나 자기보고($r=-.35, p<.01$)에 비해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5> 참고).

2) 사회적 지위에 따른 또래괴롭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차이를 밝히

<표 5> 사회적 선호도와 또래괴롭힘간의 상관관계

	또래괴롭힘	또래보고	교사보고	자기보고
사회적 선호도				
남학생(N=189)		-.31***	-.16*	-.22**
여학생(N=203)		-.58***	-.17*	-.35**

* p<.05 ** p<.01 *** p<.001

기 위하여 세 범주의 사회적 지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또래괴롭힘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F=8.50, p<.001)에서만 사회적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거부아의 또래괴롭힘 점수(M=82.03)는 인기아(M=24.50)와 무시아(M=29.82)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교사보고와 자기보고의 또래괴롭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6> 참고).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위에 따른 또래괴롭힘은 또래보고(F=14.24, p<.001)와 자기보고(F=9.2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또래보고와 자기보고 모두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부아(또래보고: M=79.00; 자기보고: M=1.81)가 인기아(또래보고: M=3.08 ; 자기보고: M=1.38)와 무시아(또래보고: M=5.67; 자기보고: M=1.56)보다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당했다. 그러나 교사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 참고).

<표 6> 사회적 지위에 따른 또래괴롭힘

사회적 지위		N	M	SD	F값	Duncan 검증
또래괴롭힘(또래보고)						
남학생(N=112)	인기아	52	24.50	33.47	8.50***	A
	거부아	38	82.03	106.51		B
	무시아	22	29.82	37.82		A
여학생(N=11)	인기아	50	3.08	6.77	14.24***	A
	거부아	42	79.00	120.42		B
	무시아	24	1.56	.36		A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래수용성은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신체용모, 학업능력 및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의 6가지 하위 요인들로 구성된다.

사회적 선호도는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수용도와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에서, 여학생들은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사회적 선호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인기아가 거부아와 무시아보다, 여학생들은 인기아, 무시아, 거부아의 순서로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지위와 자아지각간에 밀접한 관계를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들(Boivin & Begin, 1989; Harter, 1982; Kurdek & Krile, 1982; Patterson et al., 1990)과 일치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에서 보다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Inderbitzen-Pisaruk et al., 1992)와 일치한다. 남학생은 다수로 이루어진 또래집단의 소속 여부를 중시하므로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신에 대한 유능감을 경험한다. 따라서 남학생은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경험하기가 쉽다.

또한 남녀청소년 모두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

적 지위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들 중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관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수용성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들 중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Kurdek & Krile, 1982)와 일치한다. 또래수용성과 관련된 자기 평가 영역은 사회적 유능성 지각으로서, 긍정적 또래 지명을 많이 받고 부정적 또래 지명을 적게 받을수록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선호도는 사회적 수용도 및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제외하고 신체용모, 운동능력 및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과는 관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지위와 같은 또래수용성이 자아존중감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결과(Bishop & Inderbitzen, 1995)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각 요인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Harter, 1982, 1985), 다양한 영역에 대한 자아평가로 구성된 각 요인들은 서로 낮은 정도의 상관관계와 상호독립성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서 상호간에 동일시되거나 대체되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일부 요인들만 사회적 선호도와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래괴롭힘을 또래보고, 교사보고와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하고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또래괴롭힘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또래괴롭힘과 관련되는 중요한 개인의 특성들 중의 하나로 나타난 선행연구들(Boulton & Underwood, 1992; Egan & Perry, 1998; Olweus, 1984, 1993)과

일치한다.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들간의 관계는 평가자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남녀 모두 또래보고와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 괴롭힘은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가장 큰 관련이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이 전반적 자아가치감보다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더 높은 관계를 보인 연구(Egan & Perry, 1998)와 일치한다. 또래괴롭힘이 또래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볼 때, 또래관계에서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사회적 수용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기가 쉬울 것이다. 또한 남녀학생 모두 또래, 교사와 자기에 의해 보고된 또래괴롭힘은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모두 관련이 나타나,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당할수록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학업능력을 성취의 척도로 간주하는 우리 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학업 능력이 낮은 아동들이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또래괴롭힘에 대한 자기보고가 또래보고와 교사보고보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들과 더 높은 관계가 있었다. 또래들과 교사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자들이 또래괴롭힘을 당한다고 보고한 경우보다 아동들이 스스로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고 지각하는 경우 자아존중감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 역시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평가자로 인해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또래괴롭힘의 적절한 평가도구로서 자기보고의 유용성을 강조한 Olweus(1991)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래수용성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를 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사회적 선호도와 또래괴롭힘간에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 사회적 선호도가 높을수록 또래보고, 교사

보고와 자기보고 모두에서 또래괴롭힘은 낮았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또래괴롭힘은, 남학생의 경우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에서 여학생의 경우 또래보고와 자기보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거부아가 인기아와 무시아보다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당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수용성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들에서 또래집단에서의 수용성이 낮은 청소년들, 즉 또래들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청소년들은 또래들로부터 만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Hodges et al., 1997; Perry et al., 1988)을 지지한다. 또래집단내에서 수용성이 낮은 거부아 및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에 대한 편견이 발달하여 또래들은 이러한 아동들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부아들과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은 다양한 발달상의 문제를 겪게 된다. 또래집단에서 거부된 아동들은 다양한 적응 문제와 관련된다는 많은 선행연구들(Asher et al., 1984; Cassidy & Asher, 1992; Parker & Asher, 1987)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또래거부나 또래괴롭힘과 같은 또래경험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심각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남녀 모두 교사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학급의 교사들이 또래괴롭힘을 지각하는 반응점이 다르고 교사들은 어떤 아동들이 괴롭힘을 당하는지 알고 있지만 부적절한 감독으로 인해 책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제의 심각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교사보고 방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간의 유의한 관계를 밝힘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히, 또래수용성보다 또래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유의한 관계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받을 만하다. 지속되는 괴롭힘과 학대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두려움, 우울감과 불신감을 증가시키며, 또래들은 괴롭힘을 당한 아동들이 정서적 적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아동들을 멀리할지도 모른다. 또래수용성이 낮은 청소년들은 또래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 이러한 사실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PNI척도를 사용하여 또래괴롭힘을 측정하였고 이러한 또래보고뿐만 아니라 교사보고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자기보고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또래괴롭힘에 대해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또래수용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아동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래지명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지위와 같은 또래수용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

분은 단일차원적인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하위 요인들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구분하여 분석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와 후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연령 범위를 확대한 연구와 함께 종단연구도 이루어져 발달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이 횡단 연구를 통해서도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을 인과 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종단 연구를 통해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또래수용성과 또래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완전하게 예언하는 변인들이 아니므로 다양한 또래관계 변인들과 부모자녀관계 변인을 포함하여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또래수용성에 비해 또래괴롭힘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래수용성과 또래괴롭힘 또한 상호 관계가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적응 및 발달과 관련되는 또래괴롭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 및 관심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민주(1993).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 환경 및 또래 환경과 역량 지각.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연진(1992).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아지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용주, 이재연(1993). 학령기아동의 친구관계에 따른 대체지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4(1), 109-127.
- 한종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sher, S. R., Hymel, S., & Renshaw, P. D. (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78). The self-system in

- reciprocal determinism. *American Psychologist*, 33, 344-358.
- Bem, D. J. (1972). Self-perception theory.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6). New York: Academic.
- Bishop, J. A., & Inderbitzen, H. M. (1995).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4), 476-489.
- Boulton, M. 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Boivin, M., & Begin, G. (1989). Peer status and self-perception among early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case of the rejec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591-596.
- Bukowski, W. M., Hoza, B., & Newcomb, A. F. (1994). Using rating scale and nomination techniques to measure friendship and popular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485-488.
- Cassidy, J., & Asher, S. R. (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2.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cross 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social or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 (Ed.),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275-385). New York: Wiley.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 (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87-116). New York: Plenum.
- Hodges, E. V. E., Malone, M. J.,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 Hoover, J. H., Oliver, R., & Hazler, R. J. (1992). Bullying: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3, 5-16.
- Hymel, S., Franke, S., & Freigang, R. (1985). Peer relationships and their dysfunction: Considering the child's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 405-415.
- Inderbitzen-Pisaruk, H., Clark, M. L., & Solano, C. H. (1992). Correlates of loneliness in mid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2), 151-167.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Manifestations and relations to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 267-283.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Cause or consequence of

-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305-1317.
- Kurdek, L. A., & Krile, D. (1982). A developmental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3, 1485-1491.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inct relational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 1181-1197.
- Olweus, D. (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pp. 57-76). John Wiley & Sons, Ltd.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411-45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 315-341).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Perry, D. G., Williard, J. C., & Perry, L. C. (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berg, M. (1986). Self-concept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In J. Suls & A. G. Greenwald(Eds.),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self*(Vol. 1, pp. 107-136).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Wiggins, J. & Winder, C. (1961). The Peer Nomination Inventory: An empirically derived sociometric measure of adjustment in preadolescent boys. *Psychological Reports*, 9, 643-677.

<부록> 또래괴롭힘 척도 (또래보고용)

◆ 먼저 자기 이름에 × 표를 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문항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을 모두 표시(V)해 주십시오.

문 항	이 름	홍 길 동							
						
1.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한다.									
2.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한테 질 때가 많다.									
3.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비웃는 식의 별명을 자주 듣는다.									
4. 아이들은 이 아이에게 심술궂게 행동한다.									
5. 다른 아이들은 이 아이를 괴롭힌다.									
6.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서 맞거나 밀린다.									
7. 아이들은 이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한다.									